



전남쌀 190t 北 가나

민간단체 17일 육로 전달 예정...장흥서 도정·포장 작업 정부 긍정 검토 속 남북 해빙무드 촉매제 작용 가능성

민간단체들이 17일 육로를 통해 전남쌀 190t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서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북한의 쌀 지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지면 현 정부 들어 처음인데다, 향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귀추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17일 북한 수해 피해지역인 신의주에 203t(40kg들이 5075포대)을 육로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통일부에 '북한 지원용 쌀 반출 신청서'를 냈으며, 승인이 이뤄지면 17일 대표단 35명이 북한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 지원용 쌀 203t은 장흥에서 생산된 쌀이 190t(40kg들이 4750포대)으로 가장 많고 가톨릭농민회가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 10t(40kg들이 250포대), 강원도 흥천쌀 3t(75포대) 등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재 장흥 정남진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도정 및 포장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7일 임진각에서 각각 환송식을 연 뒤 북한에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공식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가 최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전남쌀의 대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또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차원의 대북 쌀 지원 계획을 비롯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임진한 사무국장은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의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대북 쌀 지원 승인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쌀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도 16일 말가루 400t을 북한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키로

'추석 금강산 상봉' 北제안 수용 검토 이대통령 "제2 개성공단 만들 수도"

정부는 추석을 맞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상봉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어제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사회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접수했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의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실무접촉을 이르면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자 측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실무접촉에 대한 북측의 제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향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측이 최근 제의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실무접촉에서 상봉 정례화를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은 12만여명인데 이미 4만여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6만여명이고, 1년에 1000명씩 상봉해도 66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현지시간)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면 제2 개성공단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17분간 방송된 러시아 국영뉴스채널 '러시아24TV'의 특집프로그램 '한국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우리는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에 협력관계 일을 해나가는데 더 편리하도록 여려가지 조치를 취하고 기입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제2 개성공단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연남뉴스

알림

日 나오시마 미술기행

地中미술관 일대 10월22일 출발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 일보사가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낙원으로 거듭난 일본 나오시마 지중(地中)미술관 일대로 문화여행을 떠납니다. <9면 광고참조> 나오시마 섬(直島)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땅속에 미술관과 호텔을 설계한 독특한 컨셉으로 유명한 곳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박4일간의 여행

에는 최근 나오시마 지중미술관에 동지를 틈 이우환 미술관을 비롯해 피카소, 르노와르, 세잔 등 화려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오카야마현의 오하라 미술관과 쿠라시키 미관지 구 등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을 아름다운 자연과 거장들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문화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여행일정 및 코스 : 10월22일~25일(3박4일), 다카마쓰 시립미술관~나오시마 지중미술관~이우환 미술관~이에 프로젝트~오카야마 오하라 미술관~고라쿠엔 정원~오카야마시~히로시마 등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신청마감 : 10월15일까지
- 참가비 : 145만원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하나투어 유니버스항공
- 후원 : 일본 오카야마현
- 접수 및 문의 : (062)522-2255(하나투어 유니버스항공)

光州日報社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비주류 김재균 당선

민주광주시당위원회장에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11일 광주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442표 중 247표를 얻어 195표를 획득한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을 누르고 시당 위원장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5면>



김 의원은 수락연설을 통해 "광주시당을 변화와 혁신의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의 선봉으로 만들어달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땀을 흘리는 자기반성과 쉼없는 기득권이라도 두

두 버리는 자기희생을 통해 사랑받는 광주시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당위원장 당선은 정세균 전 대표 측근이자 '주류'로 분류되는 강 의원과 쇠신연대 소속으로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 의원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10·3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 '표심'을 가늠할 수 있어 경선결과가 주목을 끌었다. /최권일기자 cki@

자율형 사립고 지정

- ▶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 ▶ 전국 최상위 학력 제단
- ▶ 전교생 수능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 ▶ 보다 폭넓은 장학금 제도
- ▶ 2009년 교과부 선정 영어 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황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려대학교가 2011학년도 부터 『일반대학교 (박사과정 설치)』로 전환 새롭게 시작합니다!

간호·보건·복지계열 특성화대학!
2011학년도 수시모집 / 정시모집(나,다군)

- 2010년 물리치료학과 : (모집인원 : 간호학과 60 · 물리치료학과 72)
 - 「함정대」군, 국가시험 전국 수석
 - 방사선학과 48 · 임상병리학과 46
- 2010년 간호학과 국가시험 합격률 97%로 최우수
 - 보건행정학과 20 · 작업치료학과 22
- 경찰행정학과 경찰 특·공채 98명 합격
 - 사회복지학과 110 · 경찰행정학과 65 등

총 583명

한려대학교
HANLYO UNIVERSITY
www.hanlyo.ac.kr
TEL : (061)760-1119